죽은 자를 위한 세례의 영광스러운 결과

"우리 모두가 아담에게 속해 있기 때문에 모두가 죽는 것처럼, 그리스도에게 속한 모든 사람은 새 생명을 얻게 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22

인류 전체가 죽었거나 죽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부인할 사람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바울은 첫 구절에서 이것이 첫 사람 아담으로부터 시작되었다고 설명합니다. 이는 아담이 하나님의 율법에 불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2:16-17, 3:17-19). 본질적으로 고린도전서 15장 전체는 부활을 통해

죽은 자에게 완전한 생명 회복의 기회가 주어질 것이라는 확신을 제시합니다.

바울은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한 사람(아담)을 통해 죽음이 세상에 들어온 것처럼 이제 다른 사람을 통해 죽은 자의 부활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21절). 여기서 우리는 세상을 죽음으로부터 구속하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라는 사실을 상기하게 되는데, 이는 "내 살을 세상의 생명을 위해 주겠다"고 말씀하신 예수님 자신의 말씀과 일치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51

사도는 죽음의 정죄에서 인간을 회복시키려는 하나님의 계획의 이러한 특징을 설명하기 위해 "대속"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이것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고 진리를 깨닫기를 원하시는 우리 구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선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 화해시킬

수 있는 한 분의 하나님과 한 분의 중보자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는 모든 사람을 위해 자유를 얻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바쳤습니다." 디모데전서 2:3-6

신약성경에서 "대속"으로 번역된 헬라어는 "상응하는 대가", "구속 대가"를 의미합니다. 성경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고 더럽혀지지 않고 죄인들과 구별된" 사람이라고 선언한 그리스도 예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완전한 사람 아담과 상응합니다. (히브리서 7:26, 창세기 1:26-27). 아담은 하나님의 율법을 범함으로써 자신과 모든 후손에게 죽음을 가져온 사람이었습니다. 완전한 분이신 예수님은 희생적인 죽음으로 자신을 바치셨고, 그렇게 함으로써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셨습니다. 그 희생은 아담과 그로부터 내려온 모든 사람들, 즉 인류 전체를 위한 구속을 제공했습니다. 바울이 묘사한

대로 이 "만인을 위한 대속"은 모든 사람이 생명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바울은 다른 곳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죄의 삯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값없는 선물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를 통한 영생이니라." (로마서 6:23). 요한복음 3장 16~17절에도 비슷한 생각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를 통해 세상을 구원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은 더 나아가 "그를 믿는 사람에게는 심판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를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독생자를 믿지 않아서 이미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요한복음 3:18). 이 본문은 유전으로 인해 온 세상이 사망에 대한 정죄 아래 있으며, 그리스도를 통해 이

정죄에서 해방되고 완전한 생명으로 회복될 기회가 제공되었음을 드러냅니다. 그러나 이러한 회복은 이러한 사랑의 마련을 개인의 믿음과 수용에 달려 있습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의 은혜의 공급에 대해 배우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 순종과 전적인 헌신을 조건으로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여겨지는 "의롭다"고 합니다. 바울은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었습니다."라고 썼습니다. (로마서 5:1).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 자신의 삶을 온전히 헌신하여 온전한 믿음으로 그리스도께 나아가지 않은 사람들은 현재 이 "하나님과의 평화"를 누리지 못합니다. 이들은 여전히

죄로 인해 그분으로부터 소외되어 있으며, 여전히 사망에 대한 정죄 아래 있습니다.

죽음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다른 길은 그리스도를 통하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에 대해 말하면서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천하 인간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사도행전 4:12).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죽음으로부터 구원을 얻을 수 없는 이유는 예수님이 죄로 저주받아 죽어가는 인류를 대신하여 완전한 인간의 피를 흘리신 유일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흘린 피는 부어지는 생명의 상징이며, 예수님은 아담과 그의 모든 후손이 살 기회를 갖도록 "자신의 영혼을 죽음에 부어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 53:12

그리스도의 흘리신 피의 규정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뜻에 헌신할 때, 우리는 단순히 믿는 것 이상의 것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바울은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믿는 특권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해 고난을 받는 특권도 받았습니다."라고 썼습니다. (빌립보서 1:29). 예수님과 함께 고난을 받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특권임을 나타내는 성경 구절이 많이 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에서 "이것은 믿을 만한 말입니다: 우리가 그와 함께 죽으면 우리도 그와 함께 살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을 견디면 그분과 함께 통치할 것입니다. 우리가 그를 부인하면 그분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11-12

죽은 자를 위해

적절하게도 바울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한 논의와 관련하여 모든 신자를 향한 하나님의 뜻의 이러한

측면을 언급합니다. 고린도 교회에는 예수의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죽은 자 가운데 어떤 사람도 다시 살아날 희망이 없다고 지적합니다. 반대로 그는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를 통해 모든 사람이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 완전한 생명으로 회복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될 것임을 보여줍니다. 고린도전서 15:12-22

사도는 이것이 그리스도의 통치권에 의해 성취될 것이며, 모든 원수가 그의 발 아래 놓일 때까지 그가 통치할 것임을 분명히 보여 줍니다. 죽음 자체도 멸망할 것입니다. 그 영광스러운 일이 완성되면 그리스도의 왕국은 아버지께 넘겨질 것이며, 그분은 "모든 곳에서 모든 것을 완전히 다스리시게 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24-28

여기에 바울은 이런 말을 덧붙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 자신이 매 시간마다 목숨을 걸어야 합니까?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저는 맹세코 매일 죽음을 맞이합니다. 이것은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께서 여러분 안에서 행하신 일에 대한 나의 자부심만큼이나 확실한 것입니다. 죽음에서 부활이 없다면 에베소 사람들처럼 야수와 싸우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부활이 없다면 내일은 우리가 죽으니 먹고 마시자!" 29-32절

여기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는 참된 신자들, 즉 현재 실제로 그분의 발자취를 따르는 사람들이 그분과 함께 고난을 받고 죽는다는 사실을 상기하게 됩니다. 이는 "죽은" 인류의 세계를 대신하여 죽은 자들이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의 고난과 죽음으로부터 어떤 식으로든 유익을 얻게 될 것임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바울은 설명합니다. 이것은 실제로 인류의 세계에

생명을 주기 위한 하나님의 원대한 설계의 중요한 특징 중 하나입니다. 이는 성경에서 여러 가지 방식으로 우리의 주의를 환기시킵니다. 그 중 하나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 즉 그의 자손을 통해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을 것이라는 약속을 통해서입니다. 창세기 12:3; 22:18

바울은 이 아브라함의 약속의 씨를 예수님이라고 밝히며 "세례로 그리스도와 연합한 모든 사람은 그리스도를 입었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것이므로 진정한 아브라함의 자녀입니다."라고 덧붙입니다. 여러분은 그의 상속자이며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은 여러분에게 속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16-27-29). 여기서 그리스도 안에서 침례를 받고 신실한 사람들은 땅의 모든 가족을 축복하겠다는 약속을 그와 함께 상속받게 될 것이 분명합니다. 축복을 받을 이 "땅의 가족들"은 죽었거나 죽어가고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에게

세례를 받는 사람들은 상징적으로 말하자면 "죽은 자를 위해 세례를 받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이 세례를 통해 그들은 땅의 모든 가족을 축복하는 미래의 위대한 사역에 합당함을 증명하고 준비됩니다.

세례에 대한 추가 설명

성경에서 기독교인을 위해 승인된 물에 잠기는 것은 물이 아닌 그리스도, 더 구체적으로 그의 죽음으로 들어가는 참된 세례의 상징 또는 그림일 뿐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침례로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써 그의 죽음에 동참한 것을 잊었습니까? ... 우리가 그의 죽음으로 그와 연합되었으므로 우리도 그분과 같이 생명으로 부활할 것입니다." 로마서 6:3,5

예수님의 죽음의 '닮은 모습'은 무엇이었나요? 사도는 더 설명합니다: "그가 죽으실 때, 그는 죄의 권세를 깨뜨리기 위해 단번에 죽으셨습니다 ... 그러므로 여러분도 죄의 권세에 대해 죽은 것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10-11절). 예수님은 결코 죄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분의 "죄에 대한" 죽음은 죄로 저주받은 인류를 대신한 희생적인 죽음이었습니다. 우리가 세례를 통해 그분과 함께 죽음에 심어지는 것도 마찬가지로 희생적인 죽음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썼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행하신 모든 일로 인해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간청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수 있는 산 제물, 즉 거룩한 제물이 되십시오. 이것이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길입니다." 로마서 12:1

예수님은 자신의 희생적 죽음에 대한 세례를 언급하며 "그러나 나는 받아야 할 세례가 있고, 그

세례가 끝날 때까지 얼마나 많은 제약을 받고 있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2:50). 여기서 "완성"으로 번역된 그리스어 단어는 구속 또는 사로잡힌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의 언급은 체포되어 사형에 처해질 사역의 마지막 시간을 가리키는 것이 분명합니다. 따라서 주님의 세례는 문자 그대로 "죽음에 이르는 세례"였습니다.

제자 중 두 사람이 주님의 나라에서 한 사람은 오른편에, 다른 한 사람은 왼편에 앉게 해달라고 요청하자 예수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무엇을 구하는지 알지 못한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시거나 내가 받는 세례로 세례를 받을 수 있겠느냐?"- 마가복음 10:35-38

이 두 제자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경험을 할 수 있다고 말하자 예수님은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고

내가 받는 세례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39절). 세례라는 단어는 "묻다"라는 뜻으로, 이 여러 본문에서 언급된 것은 우리의 의지가 하나님의 뜻에 묻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의 죄를 위해 희생적으로 죽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으므로, 주님의 뜻을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묻었다는 것은 죽음에 대한 세례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스승을 따라 죽음에 이르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며, 바울은 이를 죽음에 이르는 세례라고 설명합니다.

예수님의 희생적인 죽음은 아담 종족에게 내려진 사형 선고를 취소하기 위해 제공되었으며, 이를 위해 다른 희생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정죄로부터 자유로워진 세상은 그리스도의 희생 사역에 대해 깨달음을 얻어야 합니다. 이 외에도 인류는 아담이 잃어버린 완전성을 회복하기 위해 정신적, 도덕적 타락에서 벗어나고 죄의 모든 잔재에서 깨끗하게

씻겨져야 합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닮아 함께 심겨진 예수의 신실한 추종자들은 이 깨달음과 회복의 사역에 참여해야 합니다.

세상과 화해하기

화해는 둘 이상의 당사자가 서로 호의적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차이, 모순 또는 갈등을 해결하거나 해결하는 과정으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인류와 하나님의 화해에 관해 이렇게 썼습니다: "이 모든 것은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자신에게로 돌아오게 하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람들을 그분과 화해시키는 임무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 계셔서 세상을 자신과 화목하게 하시고, 더 이상 사람들의 죄를 그들에게 불리하게 계산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에게 이 놀라운 화해의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고린도후서 5:18-20

이 구절은 희생적인 스승의 추종자들이 "이 놀라운 화해의 메시지", 즉 인류의 세계를 하나님과 화해시키는 일에 그와 함께 참여한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이 일은 잃어버린 종족을 위한 구원 계획의 위대한 저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분의 계획은 예수님을 통해 실행에 옮겨졌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을 자신과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는 그분이 마련하신 화해의 사역에 그리스도의 대표자로 참여하게 됩니다. 우리는 "화해의 말씀"을 받았거나 "우리에게 맡겨진" 존재입니다.

21절은 이렇게 읽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짓지 아니하신 그리스도를 우리 죄를 위한 제물로 삼으셨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 의롭다 하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고린도후서 5:21). 여기에는 죄로 저주받아 죽어가는 종족의

후손인 우리가 하나님의 화해 사역에 쓰임받을 수 있는 근거가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보다도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화해를 위한 준비를 하셨고, 이 준비를 받아들임으로써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화해의 보혈의 가치에 아무것도 더하지 않지만, 그 보혈의 능력이 우리의 화해에 영향을 미치고,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고 여기시고 다른 사람들을 위한 화해의 사역에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특권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바울은 6장 첫 구절에서 계속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 것을 권합니다." 사도가 헛되이 받지 말라고 촉구하는 하나님의 은혜는 얼마나 놀라운가! 그분과 함께 일꾼이 되는 이 특권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서 현재의 복음, 즉 기독교 시대와 다가오는 메시아 시대라는 두 시대를

아우르는 일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제자들에게 온 세상에 가서 화해의 말씀을 통해 복음(그리스어: 좋은 소식) 전하라고 위임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14, 사도행전 1:8). 이 일에는 희생, 즉 주님을 섬기기 위해 우리의 삶을 내려놓는 희생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으로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고 죽는 것과 관련된 것입니다.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들이 모두 모이고 준비된 메시아 시대의 사역은 나머지 인류를 화해시키고 생명을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바울은 " 내가 은혜를 베풀던 때에 내가 너희를 들었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희를 도왔다"라고 썼습니다. 고린도후서 6:2

"구원의 날에"라는 표현은 개인의 일생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기 백성의 희생을

받아들이시고 그들과 함께 일꾼으로서 그분의 계획에서 역할을 부여하시는 하나님의 계획, 즉 현재의 복음 시대를 가리킵니다. 이 본문에서 바울은 이사야 49장 8~9절의 일부를 인용합니다."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적절한 때에 내가 너희에게 응답하겠다. 구원의 날에 내가 너희를 도울 것이다. 나는 너를 보호하고 너를 그들과 맺은 나의 언약으로 백성에게 줄 것이다. 내가 너를 통해 이스라엘 땅을 다시 세우고 그 땅을 다시 그 백성에게 주겠다. 나는 포로들에게는 '자유로 나오라'고 말하고,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빛으로 나오라'고 말할 것이다. 그들은 푸른 초원과 헐벗었던 언덕에서 풀을 뜯는 나의 양이 될 것이다."

하늘과 땅의 구원 모두

현세 동안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 마련하신 생명의 공급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죽도록

충성하면 영광과 존귀와 불멸로 승영할 것입니다. (로마서 2:7). 히브리서 3장 1절에서는 이들을 "하늘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베드로후서 1:4에서는 하나님의 본성인 "신성한 성품"에 참여할 수 있는 약속을 받은 자로 묘사됩니다. 로마서 5:2에서는 이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함께 나누기를 고대하며" 기뻐하는 것으로 묘사됩니다.

신성한 본성은 불멸일 뿐만 아니라 생명의 원천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에서 인용한 이사야 49장 8~9절에서처럼, 그리스도와 함께 세례를 받아 죽음에 이르는 고통을 겪으면서 모든 시련을 통해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다고 언급된 사람들은 포로들에게 "나가라",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너희 자신을 나타내라"고 말하는 것으로 표현됩니다. 이들은 그리스도와 그분의 충실한 추종자들을 통해 아담적 죽음의 속박에서 벗어나게 될 죽은 자나 산 자 모두의 나머지 인류인 "포로들"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교회처럼 신성한 본성으로 승격되지 않고 "황폐한 유산을 상속받기 위해" 나아오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지상에서의 삶의 유산이며, 아담에게 주어졌지만 죄로 인해 잃어버린 땅의 통치권입니다. 이 지상 생명의 유산은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것이며, 교회는 그와 함께 천년 축복의 왕국의 법에 순종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 유산을 회복하는 데 동참할 것이며, 그 동안 참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세례를 받고 있는 죽은 자들이 깨달음을 얻고 완전한 인간 삶으로 돌아갈 기회가 주어질 것입니다.

우리의 사랑스럽고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거의 끝나가고 있다고 믿는 이 '구원의 날' 내내 희생하는 그의 백성에게 항상 도움을 주셨다는 사실에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통해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분의 백성의 희생을 받아들이시고, 그분께 대한 그들의 신실함을

시험하여 궁극적으로 신성한 본성으로 승화되기를 바라시는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그들의 죽음의 세례가 진행되는 동안에도 주님은 그들을 위대한 구원 계획의 동역자로 사용하셨습니다. 이들은 다음 시대에도 화해의 사역자로 계속 사용될 것이며, 결국 "물이 바다를 덮음 같이" 주님을 아는 지식이 온 땅에 가득할 때까지 모든 인류에게 화해와 회복의 메시지를 전할 것입니다. 이사야 11:9; 하박국 2:14

그리스도의 대사인 교회를 통해, 그리고 화해의 말씀을 사용하여 예수님께서 제공하신 '모든 사람을위한 대속'에 대한 지식이 때가 되면 '증언'되거나 모든 사람에게 알려지게 될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2:3-6

신부

성경은 상징적인 언어로 현재의 복음 시대에 예수님의 죽음을 닮아 함께 심겨진 모든 신실한 교회 전체를 그리스도의 "신부"로 표현합니다. 요한계시록 19장 7절에서 예수님은 구속의 희생적 성격 때문에 '어린양'으로 언급됩니다. 우리는 읽습니다: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자 이는 어린양의 혼인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준비하였음이로다."

메시아 시대에 예수님과 영광 가운데 하나가 되어 인류의 회복에 동참할 사람들을 현재에 '준비'하는 일에는 많은 희생과 고통이 수반됩니다. 예수님 자신의 사역은 주로 죽음으로 끝난 희생의 사역이었습니다. 성경은 상징적으로 세례를 받아 죽음에 함께 묻힘으로써 우리도 그분과 같이 되라고 촉구합니다.

신부가 될 신부의 장식은 타인을 위한 희생으로 이어지는 이타적인 사랑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겸손과 순종의 장식이기도 합니다. 사실, 그것은 성령의 모든 열매와 은혜의 풍성한 조합입니다. (갈라디아서 5:22-23, 베드로후서 1:5-7). 그리스도의 예비 신부의 각 구성원이 이렇게 "남편을 위해 아름답게 단장"하고 전체가 "첫째 부활"을 맞이할 때에만 어린양과 신부의 결혼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2; 20:6

그러면 요한계시록 22:17이 성취될 것입니다. 그때가 되어야 비로소 신부 반이 완성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본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성령과 신부가 "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을 듣는 사람은 누구나 "오라"고 말하게 하세요. 목마른 사람은 누구나 오게 하십시오. 누구든지 원하는 사람은 생명수를 자유롭게 마시게 하라." 우리는 그분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와 충실한

교회인 "신부"를 통해 나타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과 영향력인 "성령"이 인류가 "생명수"에 참여하도록 초대하는 수단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죽음을 닮은 모습으로 함께 심겨진 사람들이 구원의 계획에서 차지하는 독특한 위치가 다시 한 번 드러납니다.

바울이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인의 고난과 죽음이 얼마나 헛된 것인지, 죽은 자를 위한 우리의 세례가 얼마나 무의미한 것인지 지적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첫 열매'이신 그리스도께서 이미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하늘의 영광으로 승천하셨기 때문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을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23). "첫 번째 부활"은 그와 함께 고난을 받고 죽은 모든 사람을 포용하여 그들과 함께 살고 다스리게 할 것이지만, 이 영광스러운 희망은 "죽음에 이르기까지"

신실함을 통해서만 실현될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0

우리는 희생으로 자신의 삶을 내려놓는 사람들을 위한 하나님의 도우심을 확신하며 기뻐합니다. 신실함에 대한 가장 큰 동기 부여 중 하나는 우리가 현재 '죽은 자를 위해 세례를 받는' 이 세상이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다음 시대에 궁극적인 유익을 얻게 될 것이라는 성경의 약속입니다. 신실하다면 우리는 죽은 세상을 생명으로 회복시키고, 그들을 깨우치고, 하나님과 화해시키고, 영원히 살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위대한 미래의 일에 동참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나 영광스러운 결과가 약속되어 있는지!